

전남 조류인플루엔자 ‘급확산’...철새 경로와 일차·오염도 6.3배

농장 차단방역 실천력 확보·오리 밀집도 해소 행정력 집중
 영암 최후 방어선 삼아 영산강 이남 강진·장흥 쪽 확산 차단

전남도가 확산 일로에 있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총력 방역 태세로 전환했다.

전남지역은 올 겨울 들어 지난 11월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주간 7개 시·군에서 매일 1~2건씩 총 16건이 발생하는 유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역별 발생은 나주 6건, 곡성 1건, 고흥 1건, 장흥 1건, 영암 2건, 무안 3건, 함평 2건이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12일 도청 기실에서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 브리핑을 통해 “겨울 철새가 매일 도내 전역을 오염시키고 있고, 특히 순천만에서 이어지는 영산강과 서해안 일대가 집중 오염돼 철새 이동경로와 AI 발생경로가 일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방역수준은 확산 추세를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누적 발생 16건 중 12건이 과거 미발생 농가일 정도로 AI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실제 올해 AI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강하고 오염도가 6.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금주 부지사는 “12월부터 내년 1월은 한파로 인한 소독 여건 악화, 철새 유입 증가로 인한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는 위험 시기로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는 앞서 20억원에 추가로 10억 원을 투입 총 30억원을 긴급 투입해 농장 중심 차단방역 실천력 확보와 오리 밀집도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나주·영암·무안·함평을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해 방역대내 산란계, 오리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차량을 집중 배치해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영산강 수계 나주 일대에서 확산 중인 AI가 영산강 이남 지역인 장흥과 강진 쪽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영암을 최후 방어선으로 삼아 총력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오리 사육 밀집도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지역에 대해 사육제한을 추가로 확대하고, 계열사와 협의해 5일 이상 조기출하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실천력 강화를 위해 소독 상황을 3단계로 확인하고 발생 농가 중 기본 방역수칙 미이행이 확인된 경우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비롯해 과태료 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10만수 이상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 대해서는 드론 소독을 주 1회에서 5회까지 확대 강화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감염속 색출을 위해 도내 582개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서도 오는 18일까지 2주간 일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개 시·도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12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전남지역 누적 발생은 가금류 16건, 야생조류 19건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카캐리어 ‘출몰’

12일 오전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기아차공장 생산 신차들이 카캐리어에 실려 출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불안한 청년들... “받을 수 있다는 확신 달라”

보건복지부, 제2차 청년 대상 간담회

제도·개혁엔 공감...세대 간 형평 강조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1시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에서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청년재단, 서울시 청년허브 등 청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 받은 20~30대 11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해왔으며, 청년 대상 간담회는 지난 11월23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신뢰와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하며,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원한다고 밝혔다.

30대 회사원 참석자는 “연금제도 자체는 꼭

필요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연금 기금 소진 등의 우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연금은 과거에 가입한 세대에 유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연금개혁 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세대 간 형평성을 모두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청년 세대에 대한 혜택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

정부는 연금개혁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령대별 일반 국민, 주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12일)들은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기약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목포시내버스 또 멈췄다

연료비 체납으로 가스 공급 중단
 목포시, 비상수송버스 58대 투입

전남 목포시내버스가 운행이 정상화된 지 26일만에 또 다시 멈췄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태원여객·유진운수 소속 시내버스 150여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지난 10월 18일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간 시내버스가 수능을 앞둔 지난달 16일 우여곡절 끝에 운행이 정상화된 지 26일만이다. 당시 목포시내버스는 노조의 파업으로 29일간 운행이 중단됐었다.

이번 시내버스 운행 중단은 시내버스 회사 측이 연료를 공급하는 목포도시가스에 29억원의 가스 연료비를 체납한데 따른 것이다. 목포도시가스 측은 채권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회사에 공증 또는 담보 제공 등에도 불응하자 지난 10일 오후부터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11개 주요 시내 노선에 전세버스 52대, 남만버스 등 모두 58대를 투입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회사 측에 운행 중단의 사유인 가스비 체무상환을 조속히 해결하고 경영 자구안에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